

# 복장 규정에 뿔난 이스라엘 여학생들 핫팬츠 시위

민소매와 반바지 차림을 금지한 학교의 규정에 화가 난 이스라엘 여학생들이 핫팬츠 시위를 벌여 화제가 되고 있다.



▲ 학교의 복장 규정에 항의하는 라야나 지역 여학생들  
© 여성운동가 리노르 도이치 트위터

각 항의했지만, 교사는 “규정에 따랐을 뿐” 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교육부는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여학생에게만 민소매와 반바지 차림을 금지한 성차별적 복장 규정에 대해서는 “복장 규정은 개별 학교의 책임” 이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 20일 더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들 전 이스라엘 서부 텔아비브시 라야나 지역의 한 학교 여학생들이 무더기로 교문 앞에서 쫓겨났다. 반바지 차림으로 등교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날은 코로나19로 봉쇄됐던 학교가 두 달 만에 문을 연 날이었다. 학생들은 섭씨 40도가 넘는 이례적 폭염 속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다. 그러나 가쪽이나 더위에 지친 여학생들에게 학교는 반바지 착용을 금지했다. 남학생의 반바지 착용은 문제되지 않았다.

같은 날 이스라엘 중부 도시 페타티크바의 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7살 소녀는 민소매 원피스 차림으로 등교했다가 교사에게 주의를 받았다. 교사는 얼른 옷을 갈아입으라며 소녀에게 티셔츠 한 장을 건넸다. 하의는 없었다. 결국 소녀는 하의 없이 속옷 바람으로 티셔츠만 걸친 채 동급생들의 놀림을 받으며 수업을 들어야 했다.

딸을 데리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어머니는 즉

‘남학생은 되고 여학생은 안 되는’ 불합리한 현실에 화가 난 이스라엘 여학생들은 19일과 20일 산발적으로 핫팬츠 시위를 벌였다. 모디안마카빔레우트의 한 학교 앞에서는 여학생 50여 명이 반바지를 입고 교문 앞에 줄지어 서 항의를 쏟아냈다.

라야나와 레호보트, 케파르사바, 게데라 지역 학교 여학생들도 시위에 동참했다. 시위가 거세지자 게데라 지역의 한 학교는 3시간 동안 교문 밖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항의하던 여학생 150명을 결국 교실로 들여보냈다.

핫팬츠 시위에 참가한 레포보트의 한 여학생은 “나도 반바지 때문에 교문에서 쫓겨나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다.”면서 “남학생과 같은 학생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가 입은 옷만 쳐다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 스파이로 의심받는 비둘기 ‘체포’



▲ 인도 국경수비대에 ‘체포’돼 구금된 뒤 조사를 받고 있는 비둘기. NDTV 화면 캡처

인도에서 스파이로 의심되는 비둘기가 ‘체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25일 인도 NDTV에 따르면 전날 저녁 7경 파키스탄과 인도의 접경지역인 잠무-카슈미르주 카투아에 사는 한 여성의 집으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집주인과 마을 주민들은 비둘기 다리에서 알 수 없는 배열의 숫자가 나열된 종이쪽지가 고리에 감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비둘기를 최초 발견한 주민은 문체의 비둘기가 파키스탄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 인도로 날아든 것을 직접 봤다고 진술했다.

주민들로부터 비둘기를 건네 받은 현지 국경수비대와 경찰은 주민들의 주장대로 비둘기의 다리에서 번호가 적힌 쪽지를 확인했지만, 비둘기 체내에 카메라 등 전자장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카투아의 한 경찰 관계자는 “파키스탄에서 국경을 넘어 인도 지역으로 스파이를 보낼 때 새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다만 비둘기의 다리에 묶여있던 쪽지의 숫자는 전화번호일 가능성이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비둘기의 다리에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묶어 주인이 있음을 알린다. 국경수비대가 현재 스파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에도 카슈미르 지역 국경 인근의 한 마을에서 파키스탄 공용어인 우르두어 및 파키스탄 내 전화번호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매단 비둘기가 발견 즉시 ‘스파이 혐의’ 를 받고 구금된 적이 있었다.

# 부부 싸움 후 고속도로에 남겨진 남편

지난 23일 오후 5시경 중국 저장성 후저우시 고속도로 갓길을 위험하게 걸어가던 20대 남성이 발견됐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울먹이며 “아내가 운전하다 지쳤다면 운전대를 대신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차에서 내린 직후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가버렸다.”고 말했다.



한 경찰에 의해 무사히 귀가 조치됐다.

이 남성은 아내가 자신에 대한 노여움을 풀지 못한 상태에서 황망히 떠난 것을 걱정한다고 말할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의 휴대폰을 통해 그의 아내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아내는 그와의 통화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조수석에 앉아 있던 남성과 운전을 하고 있던 아내는 후저우 시 S12번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고, 말다툼 끝에 아내 향 씨가 남편 진 씨를 도로에 남겨둔 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이 남성은 아내, 딸 등과 함께 상하이시 여행을 마치고 후저우시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이 남성은 고속도로를 오가던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한편, 이번 사건을 신고 받았던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는 절대로 무리하게 차량에서 내리거나 갓길을 걷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차량 밖으로 이동해 걷는 등의 행동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오가는 무수한 차량의 안전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